



"새벽달 보자고 초저녁부터 기다린다"

뜻: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일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걱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조급함 · 시기 · 비효율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새	벽	달	↓	보	자	고								
초	저	녁	부	터	↓	기	다	린	다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새	벽	달	↓	보	자	고								
초	저	녁	부	터	↓	기	다	린	다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↓										
					↓					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사벽달] [초저녁] [기다린다] [기다려요]

웹에서 보기

